



QR코드를 찍어주세요

KC Newsletter vol.24



Networks

[APC Division] 하반기 전략회의 및 교육

[KC코트렐] Hsinta Project 준공식

[KC코트렐] CCR기술상표권 사용협약체결

[KC코트렐] 세네갈 CDEPS 청소년 교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KC정림환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취득 및
여수지사 설립

[KC정림환경] 화합으로 맺어진 내변산 산행

[KC정림환경] 신용평가 등급 상승, A-

[KC한미산업] 신규폐수처리공장 준공식



Customers

[발전민수 소식] `페플라스틱도 발전연료로 쓴다-남동발전, 에너지원, 대우엔지니어링, 정우리사이클링 등 협약



[제철소식] 포스하이메탈-전기로 가동 후 첫 페로망간 생산-동부메탈과 기술 협력, 고순도 망간쇳물 35톤 출탕

Economic Trend

환율시장- 8월 원/달러,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원화 절상 흐름 이어가며 1040~1065 예상



환율전망

원자재

KC Edition

[재테크특집] 노후준비, 이대로 좋은가?
[KC코트렐] 여기는 Kazakhstan(카자흐스탄)입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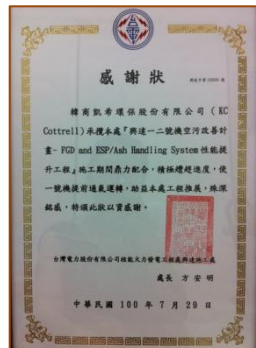
[APC Division] 하반기 전략회의 및 교육

지난 7월22일~23일 양일에 걸쳐 KC그린홀딩스 본사 지하강당에서 'APC Division 하반기 전략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APC(Air Pollution Control) 관계사 중국, 베트남, 인도, 영국 등의 법인장 차순근, 오인석, 이태준, 김성진 상무를 비롯하여 금화수상무가 KC그린홀딩스 본사에 방문하였고, 사장님, 박승원 전무, 송우일 상무, 서동영 전무 등 KC코트렐 본사 임원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전략회의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일차(회의)- 1. 상반기 법인 운영 결과 및 하반기 운영 전략 발표
- 2. 해외 영업전략 토의
- ▷2일차(교육) - '경영에 대하여' (사장님)
 - 회계교육 (김정완전무님)
 - 기술 연구소의 진행중인 R&D 과제 소개 (홍정희 팀장)

해외 주재원들은 이틀 간의 빠듯한 일정을 마치고 다시 파견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만전기주식회사 Hsinta시공처장 감사장,
내용: KC코트렐이 진행한 "Hsinta Unit 1&2 FGD and ESP/Ash Handling System Upgrading Pjt" 공사에서 KC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1가 예정보다 일찍 통기 운전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본 감사장을 드립니다.

KC그린홀딩스 기획팀 여주희
(juhee@kcgreenholdings.com)

[KC코트렐] Hsinta Project준공식

지난 7월 29일 대만 Hsinta 현지에서 안전기원제 및 프로젝트 완공식 및 Plant 제막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수주한 Hsinta Project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 2008 10 13 ESP/AHS & FGD System Upgrading 공사 수주확정
- 11 11 TPC에서 Kick-off Meeting을 기점으로 공식 프로젝트 시작
- 12 08 KC내부 Kick-off 후, Site Survey 시작
- 2009 06 Site Office Open
- 2009 10 01 Plant #1, 2 Shut-down 후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
- 2010 11 11 Plant #2 Flue Gas Instraction
- 2011 01 Plant #1 Performance Test 완료
- 2011 06 13 Plant #1 조기 통기 성공

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sinta project 현장 소식은 지난 22호 기획특집으로 실린 바 있습니다.



▶제막식 현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CCR기술상표권 사용협약체결

KC코트렐-한국남부발전

KC코트렐(주)는 2011년 7월 19일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기술 상표 등록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CCR]에 대한 기술상표권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CR은 CCS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이나 바다에 저장하지 않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KC코트렐은 CO2 포집기술개발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여 남부발전(주)와 CCR 기술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함으로써 CCR 기술이 사업화 되어 해외 수출 전락분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며 CO2 포집 및 포집된 CO2 재활용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7월27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C2면 Biz&CEO 에 게재된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코트렐 기술연구소 윤관구 과장
(goungu@kc-cottrell.com)

▶ 2011년7월27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C2면 Biz&CEO

세계 최초 CCR 기술상표권 사용 협약 체결

KC코트렐(주)-한국남부발전(주)

KC코트렐(주)은 2011년 7월19일 한국남부발전(주)과 기술 상표 등록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CCR)에 대한 기술상표권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CCR은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땅이나 바다에 저장하는 CCS와 달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KC코트렐(주)은 환경 및 신재생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기존 발전소의 탈황설비, 전기집진설비, SCR설비, 태양광 등의 신규 건설 사업에서 보다 더 확대하여 환경설비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하동화력발전소에 1MW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2008년 7월 공급하였으며, 1~6호기 탈황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과제를 2010년 10월에 수주하여 2011년 3월에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했다.

또한 0.5MW 건식 CO₂ 포집 공정기술개발에 참여하여 하동화력발전소 3호기에 0.5MW용 CO₂포집설비를 제작, 설치했고, 20배 Scale-up시킨 10MW 건식 CO₂ 포집 플랜트



건설 및 운영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해 CO₂ 포집설비 제작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개발을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포집된 CO₂를 이용한 포름산 제조기술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CO₂ 포집기술개발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KC코트렐(주)과 한국남부발전(주)이 CCR 기술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함으로써 CCR 기술이 사업화돼 해외 수출 전락분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며 CO₂ 포집 및 포집된 CO₂재활용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주) 이상호 기술본부장은 “KC코트렐(주)과 함께 세계최초로 CCR 기술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맺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후 변화 정책 이슈화 초기부터 개미산 제조 기술 투자 등 CCR기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KC코트렐(주)과 함께 향후 CCR 기술이 사업화돼 성장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의 장으로 자리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승 기자 kyusu@hankyung.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세네갈 CDEPS 청소년 교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KC코트렐은(주)는 한국남부발전(주), 현대중공업(주)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세네갈 움부르 지역 CDEPS 청소년 교육센터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난 7월 9일부터 7월11일까지 설치, 7월 14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사는 한국남부발전이 공익법인인 문화소사이어티와 함께 기획하고, KC 코트렐이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CDEPS 청소년 교육센터는 세네갈 현지 전력 사정으로 인한 잦은 정전으로 수업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국남부발전과 KC 코트렐,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네갈 현지 청소년들이 정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KC코트렐 태양광사업팀 이은정
(eunjung@kc-cottrell.com)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정림환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취득 및
여수지사 설립KC정림환경 전문건설업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취
득과 『미장,방수 공사업』 면허 취득예정 - 2종목 면허로 시너
지 효과 상승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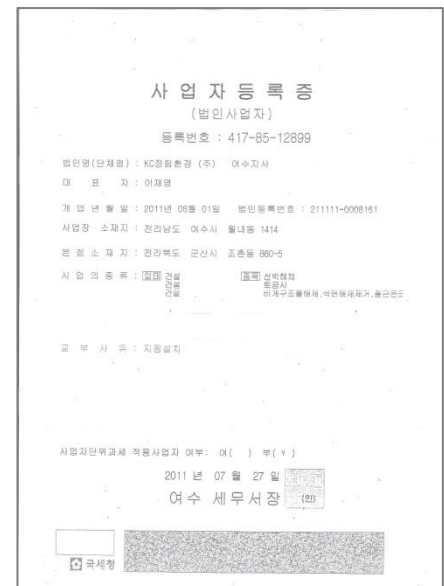
지난 7월말 KC정림환경(주)의 건설부분 활성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보유중인 토공사업, 비계구조
물 해체 공사업, 매립성 토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4종목을 포함하
여 총 5종목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전문 건설업의 면모를 갖추
고 환경사업과 더불어 건설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명간 『미장,방수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예정으로 실행하
고 있습니다. 상기 면허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건설업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토목 및 건축 기초시공 등
2.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환경사업과 관련한 각종 노후 구조
물 철거, 토목 건축 공사와 관련한 가설 비계설치, 파일 항타
등
3. 미장방수 공사업은 정수장, 배수지, 교량표면, 산업구조물 중
물과 직접 접하는 구조물의 방수, 건축물 미장방수, 질산, 황산
등 화학물질에 취약한 콘크리트 및 금속류의 PROTECTION인
ACID PROOFING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
4. 매립성토 공사업은 환경사업과 관련한 각종 매립장 조성 및
성토 등
5. 석면해체 공사업은 또한 노후 된 시설의 특수 폐기물 해체 공
사를 수행할 수 있음

아울러, 우리 관계사와 연관된 사업으로는 집진기 기초시공, 탈황설비
ACID PROOFING, 태양광 발전 기초시공, 각종 토목, 건축 공사의 시설,
증설, REVAMPING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가 있을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C정림환경은 철근콘크리트 면허의 취득에 따라 영업망 확충을 위
해 여수의 KCES 공장동 내에 8월1일자로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KC정림환경 여수지사 설립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정림환경] 화합으로 맺어진 내변산 산행

지난(2011.3/19일) 신시도산행으로 이은 내변산 산행은 3코스로 내변산 매표소-직소폭소- 관음봉-내소사로 왕복 (4시간)코스였습니다.

내변산 등산코스는 외변산 바닷가 주변으로 나누는데, 내변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많은 산 봉우리와, 계곡의 아름다움이 등산객을 매료시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날씨는 장마로 인한 습기 때문에 불쾌지수 100%. 하지만 KC정림환경(주) 직원들은 잘 맺어진 화합으로 낙오자 없이 정상등반 완료하였습니다.



▶ 산행 단체사진



▶ 내변산 등산코스

[KC정림환경] 신용평가 등급 상승, A-

2010년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받은 BBB+ 신용등급이 2011년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 A-로 단계가 상승 하였습니다.

2011.06.30일자로 등급평가가 반영되었고, 신용평가 유효기간은 2012.06.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한국기업데이터
www.kedkorea.com

케이씨정림환경(주) 귀중

발행번호 : TBF-2011-03718
발급일 : 2011년 07월 28일

귀사의 평가 의뢰에 따라 당사 신용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케이씨정림환경(주)	평 가 등 급
대 표 자	이재철	
법인(주민등록)번호	211111-0008161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자등록번호	401-81-11257	
본 사 주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60-5	A-
재무결산기준일	2010년 12월 31일	회사채에 대한
등 급 평 가 일	2011년 06월 30일	신용평가등급 A- 에
유 효 기 간	2012년 06월 29일	준하는 등급
제출처 및 용도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제출용	

※ 유의사항

-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당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령시스템에서의 평가대상 기업의 재무실태능력, 그 안정성을 평가한 것이며, 당해 기업의 재무실태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향후의 참고용도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그 활용에 따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신용평가등급은 2011년 07월 28일(등급기준일) 현재 유효한 등급으로 등급기준일 이후 기업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평가절차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용평가확인서는 상기 표기된 용도와 제출처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확인 및 문의사항은 한국기업데이터(주) (TEL:02-3215-2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D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Korea Enterprise Data 대표이사 이희수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한미산업] 신규폐수처리공장 준공식

KC한미산업(주)는 지난 2011년 7월 20일 신규폐수처리공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고재영 사장님, 이재영 부사장님, 이강욱 부사장님, 이석구 상무님이 참석하여 KC한미산업의 발전을 축하하여 주셨고 전 직원들도 사기도 복돋아 주셨습니다.

KC한미산업은 소각사업의 폐기물관리 정책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수익구조 개선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설비를 만들고자 신규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창립 후 최고의 투자금액인 46억 원이 소요된 신규폐수처리공장은 처리능력이 192톤/1일 으로 KC한미산업(주)의 향후 발전에 중심이 되는 공장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규 공장 전경



화학적 처리(전처리)



진공증발농축시설



폐유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유기산화 및 후처리시설

▶ 시설설치현황



▶ 준공식 행사; 왼쪽부터 신규폐수처리공장, 커팅식, 공장 설명



KC한미산업 관리팀 최성관 차장
(sgchoi@kc-enviro.com)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발전민수 소식]

폐플라스틱도 발전연료로 쓴다

남동발전, 에너지원, 대우엔지니어링, 정우리사이클링 등 협약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에너지원(대표 김상권), 대우엔지니어링(대표 조용경), 정우 리사이클링(대표이사 오준희)과 함께 지난 14일 국내 최초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남동발전의 우수한 발전소 운영기술과 에너지원의 RPF 연소기술을 접목한 10M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올해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소각로, RPF 발전소 설계와 건설경험을 보유한 대우엔지니어링이 설계, 건설사로 참여하며, 정우 리사이클링은 RPF 공급과 부지제공(화성시 팔탄면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폐플라스틱은 시멘트공장 등에서 석회석과 같이 보조연료로 사용되거나 일부 공장에서 증기 생산에 활용됐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했다.

RPF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90%이상의 설비 이용률을 유지할 수 있고 여열을 이용한 열공급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등 경제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또한 풍력, 태양광과 같은 대형 발전 시설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도 적용가능하며 기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다.

권순영 남동발전 신성장동력실장은 "수도권에 60%이상 RPF 생산이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하며 수입유연탄 5만톤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추진과 더불어 남동발전과 에너지원은 고형연료를 활용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을 개발, 이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전력신문 2011.7.21 박기진기자>



▲ 남동발전, 에너지원, 대우엔지니어링, 정우리사이클링은 국내 최초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과장
(soojeong@kcgreenholdings.com)

[제철 소식]

포스하이메탈-전기로 가동 후 첫 페로망간 생산

동부메탈과 기술 협력... 고순도 망간쇳물 35톤 출탕

포스하이메탈(사장 김선기)이 페로망간(FeMn) 40MVA 전기로를 가동한 지 21일 만인 7월 5일 페로망간(망간쇳물)을 쏟아냈다.

포스하이메탈의 첫 출탕은 지난해 4월 9일 첫 삽을 뜬 후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동부메탈의 페로망간 생산 조업기술 협력과 건설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맞춤형 VP-QSS 활동 등 혁신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값진 성과다.

첫 슬래그 배출은 출탕 하루 전인 7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다음 날에는 망간쇳물 35톤 생산에 성공했다.

김선기 사장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5개월 동안 신뢰와 혁신 없이는 첫 출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앞으로 포스하이메탈이 생산하는 고순도 페로망간이 최고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포스코 신문(7/14, 제877호)

KC코트렐 제철사업부 김규백
(gyuback@kc-cottrell.com)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8월 원/달러,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원화 절상 흐름 이어가며 1040~1065 예상



<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6개월)

8월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및 펀더멘탈이 건조한 통화에 대한 매수심리가 지속되는 한편 당국의 원화 절상 용인 스탠스를 반영하면서 연저점 경신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부채협상 타결시 미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고, 유로존 경기 둔화는 원화를 비롯한 준안전통화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8월 미국 부채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부채 우려로 인해 달러 신인도가 타격을 입음에 따라 달러지수 기준 연저점인 72.70을 하회하는 약세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로존 경기 둔화 리스크, 유로존 부채국가들의 8,9월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 등이 유로화 상승을 제한하고 달러의 가파른 하락이 원자재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 하락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등이 일방적 달러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부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달러는 일시적 반등이 예상된다.

세계 금융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의 부채위기가 전면에 드러나면서 호주 달러, 캐나다달러, 한국원, 싱가포르 달러 등 재정이 건전하고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통화가 고수익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꾸준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 이들 준안전통화의 강세는 선진국 부채위기 및 성장축의 다변화에 따른 글로벌 통화축의 다변화과정을 반영하므로 향후에도 외환시장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시아통화 중에서는 원화가 가장 세계 경기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통화당국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특히 아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환율 상승 재료에 둔감하고, 환율 하락 재료에 민감한 전형적인 원화 강세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부채 리스크 증가 및 당국의 물가안정 의지 강화를 고려해 당초 1050원으로 잡았던 연말환율은 102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8월 중에는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인 1050원 하향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7월중 달러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만큼 하락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외환당국 역시 원화 절상을 용인하되 환율하락 속도 조절을 지속해 추가적인 원화강세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050원 하향 돌파가 확인될 경우 1020원, 1000원 등이 중장기적인 중요 지지선이나 1040원, 1030원 등도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에는 1040~1065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여기서 잠깐!>

7월 환율은 미국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등 선진국 위기 속에 미달러가 주요 통화에 급락하고, 당국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107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한 채 1050 원이 하향 돌파되며 3년 내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이것은 QE2 종료와 유로존 우려로 원/달러의 1090원 제한적 상승 돌파를 예상하였던 7월달 전망에는 약간 빗겨나갔다. 주요 신평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을 경고하고, FOMC 의사록 및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달러가 반락한 것도 전망이 빗겨난 주요 이슈가 되겠다.

출처: 삼성증권 8월 금리환율 전망 2011.07.28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환율전망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매달 환율게시판에 올리는 연간 환율전망을 뉴스레터 추가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2011년도 8월 현재부터 앞으로의 환율예측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Nomura Bank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Citigroup,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기초로 당사가 수주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P.O발급시점) 적용할 환율이며, KC그린홀딩스 재경팀에서 선물환(HEDGE) 계약 시 참고하는 환율입니다.

통화구분	예측기간	TTS(수입시 - 구매)		TTB(수출시 - 영업)	
USD	2011.3분기	1076.00	/달러	1054.00	/달러
	2011.4분기	1047.00	/달러	1025.00	/달러
	2012.1분기	1036.00	/달러	1014.00	/달러
	2012.2분기	1031.00	/달러	1009.00	/달러
EUR	2011.3분기	1522.71	/유로	1490.71	/유로
	2011.4분기	1482.15	/유로	1450.15	/유로
	2012.1분기	1476.80	/유로	1444.80	/유로
	2012.2분기	1477.57	/유로	1445.57	/유로
JPY	2011.3분기	1319.55	/100엔	1297.55	/100엔
	2011.4분기	1253.41	/100엔	1231.41	/100엔
	2012.1분기	1226.75	/100엔	1204.75	/100엔
	2012.2분기	1194.48	/100엔	1172.48	/100엔

추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제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08.02 최초 매매기준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USD 1,049.50/달러

EUR 1,496.48/유로

JPY 13.5559/100엔

원자재 시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열연] <포소리 수급전망-열연강판>하반기 내수회복 기대
-수출과 수입은 모두 둔화 예상

[KMJ NEWS 07월27일]

하반기 열연강판의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최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열연강판 총수요는 916만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기대비 5.2%가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내수를 나타내는 명목상 소비는 788만톤을 나타내며 전기대비 5.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대비로는 5.5%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내수 확대 요인으로 자동차 분야 수요의 확대와 건설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냉연 및 강관 등 하공정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내수 역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산은 제조사들의 생산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고 있어 전년 동기대비 9.2%가 증가한 778만톤을 나타내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동남아 및 일본 등의 시장이 둔화양상을 나타내고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3분기 6.6%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이후 하락 반전되며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함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내며 3분기 138만톤, 4분기 141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열연강판 수급전망

구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총수요	전년	36,556	9,043	9,660	18,703	9,160	9,500	18,660	37,363
	전년비%	25.3	1.0	-0.9	0.0	5.6	3.5	4.5	2.2
	전기비%	25.3	-1.5	6.8	4.8	-5.2	3.7	-0.2	2.2
명 목 소 비	전년	31,835	7,547	8,335	15,882	7,880	8,130	16,010	31,892
	전년비%	27.4	-5.2	-3.3	-4.2	5.5	4.5	5.0	0.2
	전기비%	27.4	-3.0	10.4	4.1	-5.5	3.2	0.8	0.2
수출	전년	4,721	1,497	1,325	2,822	1,280	1,370	2,650	5,472
	전년비%	13	50.5	17.9	33.2	6.6	-2.2	1.8	15.9
	전기비%	13	6.8	-11.5	8.4	-3.4	7.0	-6.1	15.9
생산	전년	29,407	7,424	7,880	15,304	7,780	8,090	15,870	31,174
	전년비%	25.8	5.7	5.7	5.7	9.2	3.6	6.3	6.0
	전기비%	25.8	-4.9	6.1	2.5	-1.3	4.0	3.7	6.0
수입	전년	7,149	1,620	1,780	3,400	1,380	1,410	2,790	6,190
	전년비%	23.5	-16.3	-22.3	-19.5	-11.0	2.6	-4.6	-13.4
	전기비%	23.5	17.9	9.9	16.2	-22.5	2.2	-17.9	-13.4

※주: '11년 2분기는 추정치, 이후는 POSRI 전망치

[냉연] 2차 냉연유통 판매價 ↓, "수요가 확보, 이럴 때 많이 해야"
-냉연유통, "요즘 2차 유통, 1차 유통보다 싸다"

[KMJ NEWS 07월25일]

최근 2차 유통업체들의 제품 가격은 1차 유통업체들 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가공 공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만큼 2차 유통업체들의 판매 가격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2차 유통업체들의 제품 가격은 시장에 중국 제품 유통량이 크게 늘면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 2차 유통업체들은 밀려들어오는 중국 제품을 대량 확보, 수요가에 저가로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1차 유통업체들의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 저가 제품을 손쉽게 확보 가능한 2차 유통업체들이 1차 유통업체들로부터 구입량을 줄이려고 하자 1차 유통업체들은 저가로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에 일부 강종을 제외하고 2차 유통업체들은 저가 제품을 대량 확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STS] STS 유통, 8월 가격 톤당 10만원 인상
-니켈價 불안-수요 주춤...시장 분위기 형성 안돼 불안

[KMJ NEWS 08월04일]

포스코를 비롯한 스테인리스 냉연업체들도 8월 출하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유통업체와 판매 대리점들도 판매 가격을 각각 톤당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8월 2일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LME 니켈 가격이 3일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급락한 데 이어 하계 비수기 영향으로 시장 판매까지 주춤해지면서 인상된 가격의 시장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3일 LME 니켈 가격은 톤당 2만3,880달러로 7월 평균 가격인 2만3,731달러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지만 지난 1일 2만5,0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일 2만4,515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월초인 관계로 니켈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톤당 2만5,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7월 급등때부터 거론됐으며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자칫 급락으로 이어지거나 완만한 하락세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외는 물론 여전히 주춤해져 있는 국내 수요에 대한 불안도 유통가격 인상 적용을 다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입재와의 시장 판매 경쟁 역시 수익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가격 인상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강] 8월 할인 축소 일부 반영 중
-3만원 할인 축소... 순차적 반영할 듯

[KMJ NEWS 08월03일]

그 동안 약보합세를 보이던 H형강과 일반형강의 톤당 3만원 할인 축소가 이달부터 진행됐다. H형강의 경우 톤당 3만원의 할인 축소를 진행했으며, 한국특수형강은 일반 형강 가격을 7월 톤당 1만원 할인 축소한 데 이어 8월 들어 톤당 3만원의 할인 축소를 추가로 단행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8월부터 업체별로 톤당 3만원의 할인 축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마-휴가철이 겹치면서 할인 축소 반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3만원 할인 축소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우리 업체의 경우 일단 2만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아직은 할인 축소를 진행한 첫 주고 장마와 휴가철이 겹치는 등의 요인으로 좀 더 지켜본 뒤 재차 가격 반영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철근의 경우 도 "제강사가 톤당 5만원의 인상을 제시했지만, 제강사-건설사의 가격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3만원 정도 선에서 가격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유통업체의 분석이 있다"면서 "형강의 경우도 빠르게 전체 할인 축소분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테크특집] 노후준비, 이대로 좋은가?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지난해 OO생명에서 조사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55%가 노후준비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노후준비라고 가능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가입자가 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정작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으로 급여생활자들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전략! 연금보험으로 급여생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노후준비상품은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건 투자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노후대비만 할 것인지, 리스크가 있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해 노후대비와 목돈도 함께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일반연금보험), 안정성+수익성(변액연금보험), 수익성(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보험료의 30만원한도)이 있어서 장기투자로 인한 복리효과 외에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300만원 납입 시 소득공제효과 (불입금의 100%, 3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환급액(원)
1,200만원 이하	6.6%	198,000
12,00만원~4,600만원	17.6%	528,000
4,600만원~8,800만원	27.5%	825,000
8,800만원 초과	38.5%	1,155,000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는 장마펀드(불입금액의 40%범위 내 300만원 한도)에 비해 훨씬 큼니다. 납입금액의 100%(한도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연 300만원을 연금상품에 입금한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 후 되돌려 받는 세금은 528,000원에 달합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만 감안할 때 최고의 절세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숲을 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라면 슬기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사가 숲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리더스리치<http://www.readersrich.com>

[KC코트렐] 여기는 Kazakhstan(카자흐스탄) 입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2011년 새해 첫 출근, LCL과 KC간의 공식적인 계약체결(2월 24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카자흐스탄 Gres1 ESP PJT팀은 발전민주 사업부에 모여 전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도 못한 채 3월 18일 출국, 그 다음날인 3/19일 저녁에서야 현장 인근도시(Ekibastus)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사전조사차 방문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온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영하 15도 정도의 매서운 추위였으며, 도로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심지어 6월까지도 가끔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중앙 공급식 난방으로, 실내온도는 외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며, 4월 중순부터는 난방 공급이 중단되어 겉옷을 입고 자야만 하는 추위도 맛보았습니다. (아직 혹한기 추위는 제대로 겪어보질 못했지만 ...)

더욱이 한국에서 각종 생필품 및 사무용품을 싣고 2월 20일에 떠난 컨테이너가 예정보다 2개월이나 늦게 6월10일에 도착하여, 의식주 해결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현장사무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며칠 전에 인터넷 및 전화사용이 가능해 졌지만, 당시만 해도 사무실 집기류, 인터넷 및 전화연결, OA기기 확보 등등 사무실 기능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하나하나씩 우리의 손으로 준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고국을 떠나 한번도 와서 일해보지 못한 타국에서 느끼는 일종의 이질감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적응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 카자흐스탄 전도(Map)

카자흐스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140여 개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서유럽 전체보다도 땅이 넓은 곳(한국의 27배로 세계9위 면적), 텅스텐 및 크롬 매장량 각각 세계 1위와 2위 등 희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석탄도 다량 보유한 그야말로 유라시아의 골든 허브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 부국으로서의 입지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현재는 선진 부국의 투자 각축장이 되고 있고, 한국기업도 다수 진출하여 활약 중에 있으며, 특히 KC도 관련이 있는 발하쉬 전력사업PJT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간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국가간 PJT로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입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반면, 연평균 80도가 넘는 온도 차와 스텝지역의 건조한 기후, 오랜 유목생활에서 비롯된 아끼지 않고 모아두지 않는 습성과 70년간의 사회주의 경험을 토대로 한 관료주의 만연 등은 외국투자자본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뿌리 박힌 고루한 관료주의 문화로 인하여, 현지법인설립, 노동비자 발급, 숙소구입 및 명의이전, 현장 출입허가, Sub-con과의 기성처리 절차, 현체인 고용계약 등 많은 부분이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발주처는 우리를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만날 때 마다 5호기의 문제에 대한 성토를 계속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들은 약속일을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일이 없고 행동이 모두 자기 기준이며, 이 지역에 처음

등장한 KC조직에 대항하여 마치 텃세를 부리듯 정면으로 대항하고 반응을 떠보며 기선제압을 시도하였고, 매사 불리하면 납품 못한다, 철수한다고 역으로 어이없는 협박을 하는 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 발전소내에서 바라본 현장 전경

그러나 발주처는, 5월 1일 이 나라 “민족 친선의 날(Unity Day)” 축제 때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 숙소에서 연습하여 보여준 사물놀이 공연과, 노란 조끼를 입고 현장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누비는 적극성과, 정리정돈의 실천 등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하도급 업체도 기준과 원칙준수를 강조하며 굴하지 않는 우리의 강한 의지에 차츰 동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산은 이제 겨우 4~5부 능선쯤이고 앞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난합니다. 여기까지는 LCL의 경험과 시행착오로 구보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KC의 연료로 바뀌어 이 험난한 고지를 넘어야 합니다.

아직도 숙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발주처의 횡포, 아직 보장받지 못한 후속기의 착수, 갈수록 악화되는 PJT 원가율, 현지 제작 및 시공업체의 계약 이행에 대한 완전한 장악, 현지인과의 언어소통, LCL과의 의사소통 등등. . .

또한 업무 외적으로는 정말 힘든 것이 치안에 대한 불안과,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황량한 벌판 뿐..



▲ 2011년 5월 1일 Unity day

프로젝트 무사완료
카작팀 파이팅~!!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형호기 문제로 악화된 발주처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순조롭게 후속기 NTP를 접수하여, KC 특유의 관리System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결손을 최소화 하고, 향후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는 Project는 시행착오 없이, 자신 있게 시행되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호기 Tie-in을 위한 Shut-down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호기는 많은 시간에 걸쳐 Internal이 끝난 상태에서 Tie-in 공사에 들어간 전력에 비하여, 6호기는 Internal 공정이 1/2 정도가 남은 실정으로, 발주처가 Shut-down을 거부했었으나 KC를 믿고 모험을 한다며 8월 1일부터 3개월간 Boiler를 정지했고, 우리는 이 3개월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입성 이래 최초로 KC가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후속호기는 없는 것이라고 대표자 서명도 하였으니, 우리는 해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지만 6호기 Shut-down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들은 우리를 “공포의 노란조끼”로 부를 것입니다. “공포의 노란조끼”들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카자흐스탄 Project Fighting! Ydach!(=우다치=Victory)

2011년 8월 7일 Shut down이후 7일째 되는 날
카작팀 일동



▲ 2011년 5월 1일 Unity day



▶공포의 노란조끼